

가축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2)



이 인 형
전 축산시험장장

젖소는 날씨가 섭씨 25도 이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사료섭취량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30도 이상이 되면 아예 사료를 먹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 젖 생산량이 푹푹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여름에는 밤중과 새벽에 방목을 시켰고, 국립축축장 지역은 서해(西海)에 가까이 있다보니 1976년 겨울에는 바닷바람이 세고 3~4일간은 날씨가 영하 19도가 넘어서게 되니 운동장에 있는 수조(소가 물먹는 그릇)의 물은 물론이고 우사내의 Water Cup(우사 내에 소가 각각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된 그릇)의 물도 모두 얼어서 소가 물을 먹기가 어렵게 되어 석유를 문헌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밤중 내내 3개 우사를 돌면서 얼음을 녹여서 물을 먹도록 하여 주었다. 젖을 짜는 소는 아무리 좋은 질의 사료를 많이 먹더라도 물을 먹지 못하면 젖 생산량이 줄어들고 한번 젖 생산량이 줄어들면 다음번에 송아지를 분만한 후에도 정상 수준

으로 젖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젖소의 생리이니 생산된 젖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젖소 관리가 가축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봄이나 겨울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새벽 4시반경에 일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우사를 한바퀴 돌고 아침 점심 저녁때와 밤10~11시경에 우사를 하루에 4~5바퀴를 돌아보면서 농후사료를 도둑질 한 흔적과 젖이 제일 많이 나는 소의 뒤 발굽을 청소하는 삽으로 찍어서 도태를 하게 한 시험보조원을 적발하여 모두 퇴직을 시키기 나에게는 독종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내가 착유우사 전체를 담당하고 난 다음해 봄날, 하루는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 길에 제3우사와 제2우사를 거쳐 1우사(현재는 없음)에 도착하여 우사를 살피는데 사료창고 뒤편의 마당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이 청소를 한 것이 눈에 띄어 다시 이곳저곳을 살핀 후에 담당 연구사가 출근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가 지나서 연구사가 출근과 동시에

제1우사의 사료대장과 창고 열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창고에 있는 농후사료 포대수를 확인하니 거의 30여 포대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험보조원들을 모아 놓고 아무리 설득을 하여도 범인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며칠간을 계속 설득을 하다가 5일경이 지나서 제1우사 시험보조원 전원을 내일자로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통보를 하니 그날 오후에 범인이 자수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강한 방법을 써가며 1년여를 지나니 그 다음해의 매초 제조용 옥수수 밭에는 옥수수자루가 달린 것이 보이고 사료도둑이 없어지니 소가 자기 먹을 것을 다 찾아 먹게 되었고 춘추 전국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내가 착유우 전두수를 담당하게 되었던 첫해인 1975년에 우유 총 생산량이 1,602톤(100%)이었던 것이 1976년에는 1,699톤(106%), 그리고 내가 농림부로 진출(1977년 10월)하던 해, 3년차인 1977년에는 1860톤(116%)이 생산되었고, 젖소 개체 당 우유 생산량이 6800kg에 달하여 현재까지도 그 때의 생산기록을 갱신(更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에 재미나는 이야기 거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김영진장장(농림부 축산국장, 차관보, 농촌경제연구원장, 농업진흥공사사장, 국무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역임)을 모시게 되었는데 4월 어느 날 나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이 계장 내가 언제 우유를 많이 생산을 하라고 독촉을 하였던가? 그러한 적이 없는데 왜? 우유에 물을 얼마나 섞었기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생산량이 증가하게 하였느냐고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여건상 젖 생산량이 감소하면 물을 섞는 다기보다는 착유기를 깨끗이 하면서 남아있는 우유를 물로 씻어서 우유저장탱

크에 넣어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나중에 우유의 지방함량이 떨어져 15일 마다 지급되는 우유판매량과 금액을 보고 할 때에 발각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지만 더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금년에는 이타리안 라이그라스가 생육이 좋아 며칠 전부터 착유하는 젖소를 방목을 하였더니 어제부터 젖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지 물을 섞은 것이 아니라고 앞뒤 사정을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가축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관리를 잘 한만큼, 잘 먹은 만큼 보답을 한다는 것이 진리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감정이 있고, 정이 많은 동물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1970년대에는 국립종축장이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풍장소로 소문이 나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가끔은 귀하신 분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 일직자 외에 대가축과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어 어차피 일이 많아 쉬지를 못하니 내가 자진하여 휴일을 반납하였고, 추석과 명절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집에 가지를 않았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사람이 요리하여 주는 안주와 집에서 담근 과일 술을 오토바이 뒤에 싣고 우사를 한바퀴 돌면서 작업을 하러 나온 시험보조원 모두에게 술 한 잔을 전하면서 고기안주 한점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그때에 눈을 마주보면 맑은 눈동자에 밝은 웃음을 띤 얼굴, 그때가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착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여도 잘못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농후사료의 질과 공급체계, 초지의 유회방목체계와 건조 및 매초의 생산방법개선을 하면서 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인간적으로 시험보조원들을 대하니 젖소가 먹는 만큼 우유를 생산하게 되었고 고생은 하였지만 보람이 있게 현장생활을 마무리한 것 같다. 